블라디미르 코셀레프
(벨라루스 공화국)

벨라루스 역사 교과서에서의 한국

현대 교과서는 구소련 지역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정보와 교육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역사 교과서는 지식의 원천뿐만 아니라 세계관 형성, 정치 및 이념적 교육에 있어 중요한 도구이다. 학생 등 청소년뿐 만 아니라 학부모를 포함하는 인구의 많은 부분이 교과서의 영향력 안에 있다.

발표 내용을 다루기 앞서 벨라루스 공화국 학교 교과서 발행 준비의 특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 제도의 중앙 집중, 이행해야 하는 단일하고 엄격한 교육과정이다. 둘째, 역사 과목 구성의 두 파트인 국가, 즉 벨라루스 역사와 세계사이다.

세계사 교과서에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유럽 문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가 논의의 대상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국가의 역사는 세계사의 필수 요소이다. 또한 해당 역사적인 시기에 세계 발전을 선도한 국가와 문명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는 고대 동양, 그리스와 로마, 중세 문명, 최근 세기의 러시아, 소련,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인도, 일본 등의 국가가 다루어진다. 학교 역사 수업 시간의 한계로 인해 나머지 국가는 더 강한 이웃 국가를 다루는 내용 중에 언급되거나 아예 논의되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의 역사와 연관되어 다루어지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이 있다. 소개된 내용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내용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1. 한국은 중세 역사(2002) 교과서, 일본 문명 파트에서 처음으로 언급된다. 그 언급은 한번 뿐이다. 동아시아의 문화적 상호작용을 다루는 내용에서 ‘일본의 인쇄술’에 대한 부분이다. ‘일본의 인쇄술’이 “중국과 한국에서 들여온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p.203)

2. 8-9학년 세계사 교과서, 중국과 일본을 다루는 단원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이 더 자주 등장한다.

근대 세계사 16-18세기 교과서에서(2010) 일본 단원, 일본의 자발적 고립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200년 이상 일본은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여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있었다."(p.165)

같은 단원 일본인의 민족적 성격을 다루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4-5세기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유교를 받아들였다."(p.168)

또한 한국은 일본과 중국 두 개의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자발적 고립 기간의 일본"이라는 지도에서 일본의 이웃 국가인 한국이 나타나 있다.(p.165) "17-18세기 중국" 지도에는 중국 진나라의 속국으로 한국이 표시되어 있다.(p.170)

같은 교과서 첫판은(1994) 한국과 일본의 문화 문명적 교류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소개한다.

"기원전 1000년대 중반에 한반도 남쪽의 부족들이 일본 지역으로 이동한다. 원주민과의 오랜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쌀이 주요 농산품이 되었다. 원주민과 이방인이 통합되었다(섞였다)".(p.210)

근대 세계사 19-20세기 교과서에서(2010) 한국은 일본의 정책 내용 중이지만 더 자세하게 언급된다.

"일본은 이웃 국가인 중국과 한국을 포함시켜 자국의 영토를 확대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그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던 경제가 필요로 하는 원료,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공식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던 한국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었다.. 이는 1894-1895년 중일 전쟁의 원인이 되었고, 그 결과 일본은 대만, 펜훌레다오를 차지하였다. 1904-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를 바탕으로 만주와 한국에 대한 보호권리를 얻고 남사할린에 대한 소유권을 얻었다. 1

차 세계대전 초기, 일본은 (독일 소유였던) 태평양 섬을 차지하여 중국에서의 위치를 강화하였다.“(p.163)

3. 현대 세계사 1918-1945 교과서에서(2012) 10학년 학습자는 한국을 3개의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25-1937년 중국’지도와 ‘1931-1937년 일본’지도에서 한국은 일본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고 영토의 색깔은 일본 영토와 같다.(p.119, p.135)

‘만주 공격 작전(1945년 8월 9일 - 9월 2일)’ 지도에서 중국과 한국 지역에서 소비에트와 일본 군의 집중화, 소비에트 군의 38선 지역으로의 이동이 표시되어 있다.(p.199)

한국에 관한 더 많은 내용은 11학년 ‘근대 세계사(1945-21세기초)’ 교과서(2012)가 담고 있다. 국제 관계 단원에서 나라가 나뉜 한국 민족의 비극적인 사건인 1950-1953년 전쟁이(한국전쟁) 소개 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냉전 상황에서 대규모 무장 분쟁이 한국에서 일어났다.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수장으로 하는 북쪽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DPRK) 수립 38선으로 기준으로 한 한국의 분단을 강화하였다. 북한은 소련에서 다방면적인 지원을 받았다. 1950년 봄, 스탈린은 DPRK 수장인 김일성의 한반도를 전쟁으로 통해 통일시키려는 계획을 수용했다. 미국의 지지를 받았던 남한은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 1950년 6월 25일 DPRK 군은 남한 지역으로 공격을 시작하여 거의 모든 지역을 차지하였다. UN은 DPRK의 공격을 비판하고 16개국의 연합군을 파견하였다. 대부분은 미국군이었다. 1950년 말 미군은 DPRK 수도인 평양을 차지하고 중국 국경에 가까워졌다. 소련 전문가, 특히 공군은 UN 군에 맞서기 위해 DPRK를 도왔다. 또한 DPRK을 지원하고자 4백만명 이상의 중국 지원군이 나섰다. 치열한 전쟁 속에 전투선은 38선 근처에 안정화되었다. 1951년에 휴전에 관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투는 1953년이 되어서야 끝났다.”(p.219)

이 내용은 “한국 전쟁” 지도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p.218)

소련 연사를 다루는 단원에서 한국 전쟁 당시 소련의 수장인 스탈린의 언급이 나타나 있다.

“1951년 전쟁 종결의 필요성이 평화 협상 시작의 원인이 되었다.”(p.100-101)

같은 교과서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와 같이 남한의 “현대화 과정에서의 진척”에 대한 언급이 있다.(p.156) 즉 대한민국이 신흥산업국가가 되는 중요한 사건에 관한 드러나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된 내용을 정리하면 벨라루스 교과서에서 한국은 대부분 중국과 일본 역사 단원 또는 19세기에서 21세기까지 강대국의 대외 정책과 관련하여 언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이웃 국가, 특히 일본에 미친 문화적 문명적 영향에 대한 관심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